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노인숙, 조경아*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The Factors Influence upon Employment Volition in Alcohol Use Disorder

In-Suk Rho, Kyong-Ah Cho*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취업의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알코올사용장애로 진단받고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 12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지지는 5점 만점에 4.30점,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2.37점, 취업의지는 5점 만점에 4.06점이었다. 가족지지는 주거형태에 따라 자가소유 주택 거주자가 임대형 주택 거주자보다 높고($\chi^2=4.747, p=.01$), 자아탄력성은 교육정도에 따라 초대졸 이상이 중졸이하보다 높았으며($F=4.389, p=.01$), 취업의지는 연령에 따라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높았다($F=4.778, p=.01$). 취업의지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취업의지도 높았다($r=.309, p<.01$).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beta=.314, p<.01$)과 연령($\beta=-.253, p<.01$)이며 16.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령수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며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degrees of family support, ego-resilience and employment volition of patients suffering from alcohol use disorder, and we identified the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employment volition. This study used the survey research technique and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28 males (aged 20 years or older) and who had been diagnosed with alcohol use disorder. They had also undergone either inpatient hospital care or outpatient treatment.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amily support had a value of 4.30, an ego resilience had a value of 2.37 and the employment volition had a value of 4.06.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volition and ego resilience ($\beta =.314, p<.01$) and age ($\beta=-.253, p<.01$), and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se 2 factors was 16.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ge-based approaches are needed to improve the employment volition of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ego resilience enhancement program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help these patients.

Keywords : Alcohol, Substance Use Disorder, Family Support, Ego Resiliency, Employment Volition

*Corresponding Author : Kyong-Ah Cho(Sehan Univ.)

email: nrcka@naver.com

Received April 18, 2019

Accepted July 5, 2019

Revised May 29,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사용장애의 정신의학적 진단은 과도하고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수행에 실패하거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활동 등을 포기하는 것이다[1].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진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알코올사용장애 평생유병율은 12.2%, 일년유병율은 3.5%로 일년간 알코올사용장애에 이환된 18세 이상이 139만명으로 추산되며 성인들에게 가장 흔한 정신장애이다[2].

알코올사용장애는 삶의 중요한 영역의 기능 장애로 인해 직장에서의 잦은 결근, 직업과 관련된 사고들, 낮은 고용 생산성의 문제가 가중되는 원인이 된다[1]. 이로 인해 가장으로 역할이 약화되어 가족의 지지체계가 깨지는 가족 해체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직업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기도 한다[1,4]. 그러나 알코올사용장애 환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가족은 환자의 스트레스 및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5,6].

특히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자아통제감, 삶의 질, 금주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4,7]. 가족기능이 긍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다각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만[8,9] 실존적 안녕감에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10].

무엇보다도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내적 긴장과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현재 처해있는 환경 속에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적응하는 능력 즉 자아 탄력성이 필수적이다[11]. 자아탄력성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환경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원래의 자아통제수준으로 변화시켜 상황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의미한다[12].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공격에 민감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증가되어 분노와 감정 폭발, 주의집중, 대인관계 불신감과 예민성에서 큰 문제를 보이지 않은 반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감소하여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어 사회적, 직업적인 문제가 유발된다[13,14]. 특히 알코올사용장애 환자가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스트레스를 완충시키거나 적응을 도와주는

보호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취업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15]. 취업은 인간의 어떤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일을 하고, 일을 통해 생계 유지 뿐만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16]. 취업의지는 일을 하며 정보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 및 개인의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12].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영적 안녕감을 조사한 연구에서 지난 1년간 직업이 있었던 대상자들이 직업이 없었던 대상자들보다 영적안녕감이 높게 확인되었다[10]. 일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인식하는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17-19] 사회관계망 형성[17], 취업욕구, 보호자의 기대, 전문가의 지지, 삶의 질, 일반적 기능수준[18]이 확인되었으며, 노령 장애인은 건강상태, 정서적지지, 직업에 대한 이해 등이 취업욕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9].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직장 복귀경험[20], 직업생활 적응과정[21]의 현상학적 연구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22]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에게 직업생활은 험난하지만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통해 재발을 예방하고 만족스러운 단주 및 사회재진입에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지만, 취업의지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정도와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 향상을 위한 상담방법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의 수준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의 정도와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독립변수는 일반적인 특성, 가족지지, 자아탄력성이고, 종속변수는 취업의지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남성으로 정신과 의사에 의해 알코올의존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이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임을 알려준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수락하는 대상자 151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연구표본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인 0.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0.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107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표본의 수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최종 분석이 이루어진 대상자의 수는 응답이 불충분한 23명을 제외한 128명이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고 치료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 중등도의 기억장애를 동반한 기질성 정신장애나 알코올 이외의 다른 물질사용 장애가 없는 자
- 언어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3 연구 도구

2.3.1 가족지지

가족지지 도구는 박지원[24]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원정숙과 조희[25]가 수정·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지지, 물질지지, 정보지지, 평가지지 등 4개의 하위 척도이고, 긍정문항 10개, 부정문항 10개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대상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척도에 대

한 질문으로서 5점 Likert Scale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94, 원정숙과 조희[25]의 연구에서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2.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 과 Kremen[12]이 개발한 자아 탄력성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6]이 변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14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4 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요구되는 스트레스 사건 경험 후에 개인의 자기 통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76, 유성경과 심혜원 [26]의 연구에서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2.3.3 취업의지

취업의지 도구는 Van Dongen[27]이 직업재활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직업의 의미에 대한 인식' 중 취업의지 부분을 최희수[28]가 수정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최희수[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방법은 병원 사회복지사와 알코올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가에게 연구자가 사전에 설문방법 및 절차의 일관성을 위해 자료수집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수집의 방법을 교육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정도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시행하였다.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나이는 40대가 43.8%, 50대 이상이 29.7%, 40세 이하가 26.5% 순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결혼 37.6%, 미혼 34.4%, 이혼, 별거 등 기타 18.0%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 48.4%이 가장 많고, 대졸 이상이 21.1%, 중졸 이하가 29.7%이었다. 주거형태로는 자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형태 41.4%, 기타 14.9% 등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year)	<40	34(26.5)
	40-49	56(43.8)
	≥50	38(29.7)
Marital stage	Married	44(34.4)
	Not Married	58(45.3)
	Others	25(20.3)
	≤Middle school	38(29.7)
Education	High school	62(48.4)
	≥College	23(21.9)
	Own house	56(43.8)
Housing Tenure Status	Rent	53(41.4)
	Others	19(14.9)

3.2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대상자의 가족지지 평균 점수는 4.30점이고, 자아탄력성의 평균 점수는 2.37점이며, 취업의지의 평균 점수는 4.06점이었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of Variables (n=128)

Variables	M±SD
Family Support	4.30±2.08
Ego Resiliency	2.37±0.41
Employment Volition	4.06±0.76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는 주거형태에 따라 자가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임대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가족지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749, p=.010$). 자아탄력성은 교육정도에 따라 대졸 이상 대상자가 중졸 미만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389, p=.014$). 취업의지는 연령에 따라 40세 미만의 취업의지 점수가 50세 이상 대상자의 취업의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778, p=.010$) (Table 3).

3.3.4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취업의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의지는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09, p<.01$)(Table 4).

Table 3. Difference of Variable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Variables	Categories	n	Family Support		Ego Resiliency		Employment Volition	
			M±SD	F/(p)	M±SD	F/(p)	M±SD	F/(p)
Age(year)	<40 ^a	34	2.05±0.23	0.921	2.40±0.33	1.007	4.32±0.48	4.778
	40-49 ^b	56	2.10±0.29	(.40)	2.30±0.46	(.37)	4.13±0.74	(.01)
	≥50 ^c	38	2.16±0.45		2.41±0.41		3.80±0.86	a>c
Marital stage	Married	44	2.03±0.24	2.833	2.25±0.35	2.273	4.14±0.71	.263
	Not Married	58	2.18±0.40	(.06)	2.41±0.40	(.11)	4.06±0.73	(.77)
	Others	25	2.04±0.25		2.43±0.53		4.01±0.86	
Education	≤Middle school ^a	38	2.01±0.30	0.577	2.36±0.49	4.389	4.12±0.56	2.128
	High school ^b	62	2.10±0.35	(.56)	2.30±0.38	(.01)	4.00±0.80	(.12)
	≥College ^c	23	2.14±0.26		2.56±0.44	a>c	4.34±0.58	
Housing Tenure Status	Own house ^a	56	2.14±0.22	4.749	2.38±0.40	.100	4.22±0.77	1.066
	Rent ^b	53	2.00±0.25	(.01)	2.36±0.41	(.91)	4.03±0.68	(.35)
	Others ^c	19	2.10±0.23	a>b	2.41±0.26		4.03±0.59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n=128)

Variables	Family Support	Ego Resiliency
Ego Resiliency	.145(.12)	
Employment Volition	.025(.79)	.309(<.01)

3.3.5 대상자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입력 방식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가족지지와 자아탄력성을 투입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취업의지에 차이가 있었던 연령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공차한계는 .968~.989로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011~1.033으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Dubin-Watson 상관계수는 1.943으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향력 분석을 위해 Cook's D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이상인 개체는 없었고, 편회귀 잔차도와 정규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이상적인 분포를 나타내어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202, $p<.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163로, 설명력은 16.3%였다.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beta=.314$ $p<.01$)과 연령($\beta=-.253$ $p<.01$)으로 확인되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Volition

	B	SE	β	t(p)
Constant	3.506	.506		6.923(<.01)
Age	-.223	.077	-.253	-2.892(<.01)
Family Support	.034	.177	.017	.191(.85)
Ego Resiliency	.511	.143	.314	3.582(<.01)
Adj R ²			.163	
F(p)			7.202(<.01)	

4. 논의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및 취업의지의 정도를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중요한 논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족지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3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정신병원과 알코올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대상의 연구와[4] 입원한 알코올사용장애 대상의 연구[7,29]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가족지지 점수는 특정 질환이 없는 중년남성 대상[30], 노인대상[31], 저소득층 대상[32]의 가족지지 점수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질환이 있는 부인암 환자 대상[33], 결핵환자 대상[34]의 가족지지 점수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가족들의 질환에 대한 인식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의 인식보다는 문제행동으로의 인식이 더 강하거나, 환자로 인해 가족이 느끼는 고통이 가중되어 환자를 지지해줄 만큼의 가족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가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집단이 임대형 주택에서 거주하는 집단보다 가족지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결혼상태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집단, 동거가족 형태에 따라 아내와 자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집단의 점수가 높았던 선행연구[30,31,33,34]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라 가족지지의 차이는 없었다. 간병인 지지를 받는 뇌졸중 환자보다 가족지지를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았고[35], 가족지지가 낮은 정신장애인보다 가족지지가 높은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과, 특히 직업탐색 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던 연구결과[36]처럼 가족지지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도 삶의 질과 회복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 점수는 4점 만점에 2.37점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을 측정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아동[11], 대학생[37-40], 간호사[41], 취업준비생[42], 실직자[15]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중간 정도의 점수로 동일도구를 사용한 우재희[43]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하위영역의 평균이 5점 만점에 1.90~1.98점인 결과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자아탄력성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에서 학력에 따라 초대졸 이상 졸업자가 중졸이하 졸업자보다 높았다. 동일 대상의 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문제음주 사

이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규명한 선행연구[37]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수 중 감정통제는 문제음주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문제음주 중에 유해음주는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수와 상관성이 나타나 알코올 사용장애와 같은 심각한 음주문제는 자아탄력성과 더 깊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은 단주의지를 강화시키고[44,45], 가족관계와 더불어 자살을 낮추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난[43] 결과를 함께 볼 때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 자아탄력성이 매우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의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0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취업의지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가 3.78점인 선행연구[18]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연령에 따라 40세 이하의 대상자가 50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취업의지 점수가 높았다. 이는 최초 진단당시 연령을 고려할 때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신체적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이 작았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의지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5]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진로장벽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취업의지를 증진시켜 구직활동으로 행동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넷째,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에 영향 요인으로 자아탄력성과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취업의지가 높았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직장 내에서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기도 하고, 알코올에 노출되어 있는 직장문화에서 다시 술에 유혹되기 쉬운 환경이지만 직업을 유지하고자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며 직업생활에 적응한 과정을 보여준 결과와[21] 유사한 맥락이다. 연령은 취업의지에 부적 영향요인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의지가 높았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취업의지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6,46]. 연령이 낮을수록 알코올사용장애 진단기간이 짧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건강과 전반적 기능상태가 좋으므로 취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 직업을 갖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47]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128명의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취업의지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의지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취업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 중요한 회복의 지표가 되는 취업의지를 측정하고, 회복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여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동일 대상과의 직접 비교가 어려웠으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 및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지를 증진시키는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2015.
DOI: <https://doi.org/10.1176/appi.books.9780890425596.190656>
- [2]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
- [3] S. R. Kang. "The Recovery Process of Alcohol Dependent Men Living in a Therapeutic Commun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pr;47(2):267-76, 2017.
DOI: <https://doi.org/10.4040/jkan.2017.47.2.267>
- [4] Y. S. Kwon, M. H. Hyun.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Self-Control, Hopelessness, Perceived Support from Family, and Suicidal Ideation in Alcohol Use Disorde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Jun;19(2):585-605, 2014.
- [5] S. J. Catanzaro, J. Laurent. "Perceived family support,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coping, and adolescent alcohol use: Evidence of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Addictive Behaviors. Elsevier BV; Dec;29(9):1779-97, 2004.
DOI: <http://dx.doi.org/10.1016/j.addbeh.2004.04.001>

- [6] D. Mortimer. L. Segal. "Economic evaluation of interventions for problem drinking and alcohol dependence: cost per QALY estimates. Alcohol and Alcoholism", Oxford University Press (OUP):15:40(6):549-55, 2005.
DOI: <http://dx.doi.org/10.1093/alcalc/agh192>
- [7] M. S. Yoon, Y. C. Chung, J. S. Lee, B. H. Lee, H. C. Cho,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Quality of Life among Alcohol Dependent Patients : Moderating Effect of Abstinence Self-Efficacy",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Sep;51:277-84,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5.24.1.50>
- [8] K. S. Jung. "Study on ecological-system factors affecting alcoholics' recove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2006.
- [9] B. S. Park. H. M. Jin. M. S. Hoe. "The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n Male Alcoholics Exploring on the Roles of Family Function and Family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 38, 172-204. 2011.
- [10] H. O. Jung, Y. S. Chea. H. S. Kim. "The Influence of Self-esteem, Trait anger, Depression, Family Fun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in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4(1):50-60, 2015.
- [11] E. M. Lee. I. J. Park.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ren's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7(1), 3-24. 2002.
- [12]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349-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13] Y. M. Han. "The 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Resilienc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0(1):97-110, 2009.
- [14] D. I. Min.. "The Effects The Effects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trengths,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and Ego-Resilience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2007.
- [15] M. S. Yeo.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of Unemployed Person's Career Barriers, Ego-Resilience, Job Search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7(1):95-119, 2017.
- [16] J. Y. Lim. "The Factors That Influences on Employment will of Senior Citizenship- Centering on Seoul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1.
- [17] J. Y. Kim. J. S. Lee. S.H. Oh.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ntent to work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ncovering the roles of positive expressions from family members, social network, and disability ident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2):147-72, 2014.
- [18] S. S. Han. J. H. Han. E. K. Yun. "Predictors of Employment Intention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ug;38(4):541-9, 2008.
- [19] H. J. Par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Needs Among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Jun;8(2):169-95, 2007.
- [20] K. H. Cho. "A Phenomenological Study on Return to Work of Recovering Alcohol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yeongtaek University 2013.
- [21] M. S. Cho. H. J. An. "Adaptation Process in the Workplace in Korean Adults with Alcohol Use Disor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7(3):216-226, 2018.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8.27.3.216>
- [22] Y. S. Lee. M. J. Woo. "A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rse to help alcoholics adapt to society",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6(1):63-71, 2005.
- [23] I. M. Beam. "Helping families survive", Th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84(2):229-32, 1984.
DOI: <https://doi.org/10.1097/0000446-198402000-00022>
- [24]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 [25] J. S. Won. H. Cho. "The Effect of Community Based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Program on Perceived Family Support of Mentally Ill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7(1):187-98, 1998.
- [26] S. K. You. H. W. S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189-206, 2002.
- [27] C. J. Van Dongen.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in working and nonworki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2(6):535-48, 1996.
DOI: <https://doi.org/10.1007/bf02251064>
- [28] H. S. Choi. "A Study on the Predict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for Persons with Schizophren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1999.
- [29] Y. C. Lee. J. Y. Park.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Recovery of Alcoholics: Focus on Hospitalized Patients", Alcohol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18(1):15-29, 2017.
DOI: <https://doi.org/10.15524/ksas.2017.18.1.015>
- [30] Y. H. Ka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344-53,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2.344>
- [31] E. S. Yu. S. S. Le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 Effects of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for Elderly's Self-ident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254-73, 2014.
- [32] S. Y. Park. "Relationships of Depression and Positive Emotions with Hope and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 of Family Support for People in Low-incom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0:189-214, 2013.
DOI: <https://doi.org/10.16975/kjfs.2013..40.007>
- [33] H. M. Cho. E. K. Yoo. "Effects of Depression, Family support on Resilience in Patients with Gynecological Cancer", Journal of Wellness. 10(4):183-95, 2015.
- [34] S. J. Park. M. J. An. H. S. So. "Relationships of Stigma, Family Support, and Quality of Life in Tuberculosis Pati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9):285-94,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9.285>
- [35] I. H. Park. S. W. Park. H. C. Kwon. "The Correl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and Family Support of Stroke Patients", Th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5(2):41-9, 2011.
- [36] Y. Y. Kim. S. W. Bae. "The Level of Perceived Family Support of the Mentally Ill and its Differential Impact on Psychosocial Rehabilitation Outcomes", Family and culture. 17:235-57, 2005.
- [37] K. H. Seo. S. M. Kim. "Roles of Life Stress and Ego-Resilience in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Alcohol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10(2), 21-34. 2009.
- [38] K. S. Park. H. M. Yoon. "University Students` Health Behavior, Depression, and Ego-resil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2), 113-122. 2016.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2.113>
- [39] S. H. Park. S. H. Ha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517-526.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8.517>
- [40] M. S. Park. C. U. Oh. H. K. Kang.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2), 73-81.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2.073>
- [41] A. S. Lee. C. K. Yoon. J. M.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on of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1). 2012.
DOI: <https://doi.org/10.5807/kiohn.2012.21.1.46>
- [42] N. Y. Eom. E. H.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619-63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5.619>
- [43] J. H. Woo.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Relationships and Suicide for Alcoholic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3), 365-386. 2016.
DOI: <https://doi.org/10.13049/kfwa.2014.19.3.365>
- [44] Y. S. Rhee. S. Y. Kim. "Effect of Abstinence efficacy on Recovery Among Alcoholics-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8472-8478.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2.8472>
- [45] Y. M. Yang. S. "The Influence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apeutic Factors of Alcoholics Anonymous and Abstinence Self-Efficacy", Alcohol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11(1), 57-75. 2010.
- [46] S. W. Lee. S. Jung.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and the Willingness to Work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6(1), 41-66. 2016.
DOI: <https://doi.org/10.15707/disem.2016.26.1.002>
- [47] A. R. Park. "Recovery experiences of Korean alcoholics : being rebor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hwa Women's University. 2008

노 인 숙(In-Suk Rho)
[정회원]

- 1998년 2월 : 경희대학교 (행정학 (간호행정)석사)
- 2006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1985년 8월~2000년 10월 : 국립 정신건강센터 정신전문간호사

- 2000년 10월 ~ 2005년 2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2009년 9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지역사회정신건강, 의사소통, 인간관계, 북한이탈주민, 대체보완치료, 한방간호, 다문화 등

조 경 아(Kyong-Ah Cho)

[정회원]



- 2014년 2월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8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 정신간호, 의사소통, 시뮬레이션